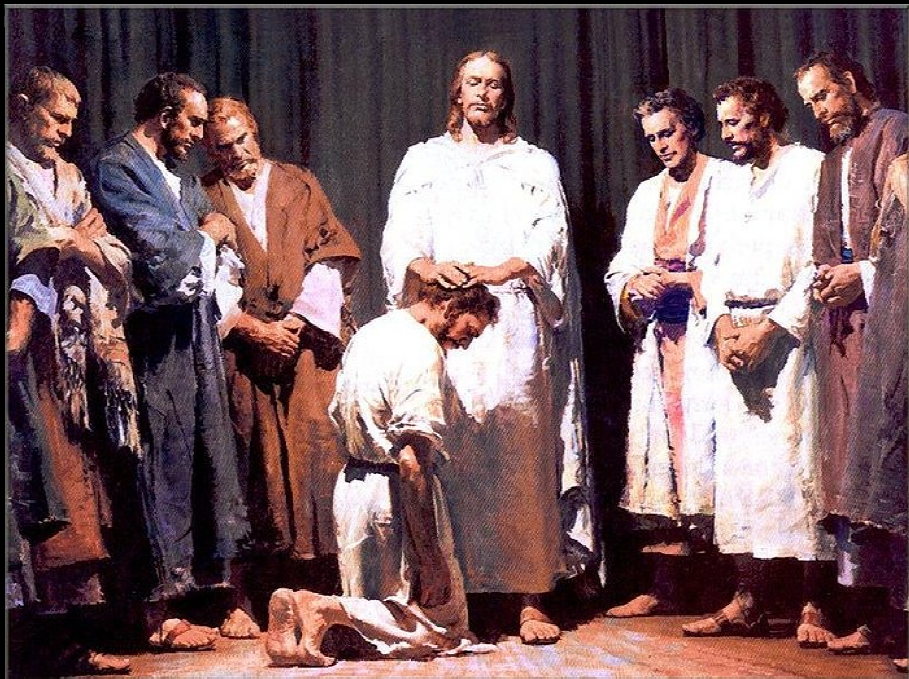


2015 7. 12 연중 제 15 주일

제 1 독서 : 아 모 스 7,12-15 <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

제 2 독서 : 에 페 소 1,3-14 <또는 1,3-10> <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복 음 : 마 르 코 6,7-13 <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바보 멍청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는 76 세의 멕시코신부님이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이책에는 모든 욕이란 욕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욕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 바보 멍청이들은 행복 할 줄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욕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신부님

께서 육까지 사용하여 책을 쓰셨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이책에서 강조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아! 반 평생을 돈을 버느라고 눈이 멀어서 정신 없이 살다가, 나머지 반평생은 그 돈으로 네 병난 것 치료하다 죽는구나! 왜 그러냐?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줄을 모르고,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줄도 모르고, 돈이 하느님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책을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대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기자신이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바보 멍청이들을 위해서 썼다고 하십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보면, 아모스 예언자는 요즘 시쳇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순진한 사람 이었습니다. 목동, 양을 치면서 벌꿀을 따먹고 사는 마음이 순수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느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가라!” 그 말을 듣고 아무 살붙이도 없는 그 곳으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자들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어도 자기가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다는 확신때문에 행복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 하셨고,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 또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많은 증인들의 삶, 즉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하게 자기일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중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이나 하면? 주시는 하느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느님, 내가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게 해 주시는 하느님 을 만들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 줄 수있는 것은 옛날의 종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에 빠져 헤매일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 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하느님께서서는 독생성자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선택 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가? 이지요. 주님의 선택에 주님의 부르심에 “ 네!” 하며 순명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둘씩 짝을지어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 입니다. 그 분은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보내심을 순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신 생활이 있다는 것 입니다. 육체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신의 세계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리한 동물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영리한 동물에 머물러 살고 싶은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성자께서 사랑의 신비와
인간의 존엄을 밝혀 주시니,
저희가 오로지 그리스도만 따르며,
성령으로 가득 차,
믿음과 실천으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12-15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츠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들여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츠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85(84),9 ᄒᆞᆫ과 10.11-12.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 2 독서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3-14<또는 1,3-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7-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